# “천지는 나와 한 뿌리, 만물은 나와 한 몸”

## <27> 선사(禪師) 문하의 거사들(8)

### 남전 선사 속가제자 육긍, 마조 선사 문하 방온과 비견
### 육긍 거사 외호자 아닌 ‘함께’ 道 논하고 깨치는 입장

마조도일(馬祖道一) 선사 문하에는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다. <조당집> 권14에는 “마조 선사 문하에서 직접 법을 계승한 88인이 세상에 출현했으며, 은둔자까지 더한다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기술했다. <경덕전등록>과 <고존숙어록>에서는 입실(入室)제자 수를 139인으로 적었다. 이어 “그들은 모두 각각 한 지방 종주(宗主)가 됐고 교화하기에 다함이 없었다”라고 전한다. 또한 <송고승전> 권11에서는 “천하에 불법(佛法)이 극히 성행해 홍주종[洪府]을 넘는 바가 없었다. 문하에 수많은 현성(賢聖)이 어깨를 겨루고, 득도(得道)한 자가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말해 당시 천하에 홍주종이 널리 유행했음을 밝혔다. 가속(賈餗) 거사가 보력(寶歷) 원년(825)에 찬술한 <대비선사비명(大悲禪師碑銘)>에서는 “조계 대사 입적 후, 법을 이은 신회(神會)와 회양(懷讓)이 또한 두 종(宗)을 이루었다”(<전당문> 권732)라고 해 남종선 주류를 하택종과 홍주종으로 보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토록 남악계를 하택종과 비견될 정도로 크게 일으킨 이가 바로 마조 선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문하에 수많은 선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삼대사(三大士)’로 칭해지는 백장회해(百丈懷海), 남전보원(南泉普願), 서당지장(西堂智藏)의 걸출한 선사들이다. 이들 세 선사 문하에는 문인과 사대부 출신의 걸출한 거사들이 무리를 이루었지만, 그 가운데 마조 선사 문하의 방 거사(龐居士)와 비견될 거사는 바로 육긍(陸亙; 764~834) 거사이다.

육긍 거사는 남전보원 선사의 유명한 속가제자로서, 흔히 ‘육긍대부(陸亙大夫)’로 칭해진다. 거사의 자(字)는 경산(景山)이고, 오군(吳郡; 현재 江蘇省 蘇州)사람이다. 관직은 정주(鄭州), 선주(宣州), 월주(越州) 등 여러 주의 자사를 역임했고, 선감호부시랑(戶部侍郎), 어사대부(御史大夫)에 이르렀다.

<송고승전>에 따르면, 보원 선사는 정원(貞元) 11년(795), 지양(池陽)의 남전산(南泉山)에 선사(禪寺)를 짓고서 30여 년간 하산하지 않고서 주석했다. 태화(太和) 초년(827), 선주자사 시절의 육긍 거사는 전지양태수 모(某)씨와 호군(護軍) 류공(劉公)과 함께 ‘속진(俗塵)에서 벗어나 사방(四方)의 법안(法眼)을 열고자’ 남전 선사를 청해 ‘북면(北面; 극도의 존중을 의미)해 제자의 예(禮)’를 갖추고 스승으로 섬겼다. 그 후, 2년이 채 안돼 ‘분주하게 달려온 고관대작[轟衣]의 자식들이 수백 명이 넘었다’고 한다. 보원 선사는 30여 년간 일반대중에게 교화를 하지 않다가 육긍 거사의 청으로 일반대중들에게 교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 교화가 대단히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남전 선사와 사제의 인연을 맺은 육긍 거사는 선사가 입적 시(태화 8년(834) 12월 25일)까지 수시로 참문했다. 그에 따라 <조당집> <경덕전등록> 등에 거사와 관련된 여러 공안(公案)이 실려 있다. 이러한 공안들은 다시 여러 공안집에 전재돼 있고, 또한 다양한 선사들의 어록에 인용됐다.

<조당집> 권18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육긍 거사는 친히 남전 선사의 심계(心戒)를 받았다. 육긍 대부가 남전 선사에게 “제자의 집에 한 조각의 돌이 있는데, 혹 앉기도 하고 디디기도 하는데, 지금 부처님 모습을 새기려고 합니다. 여전히 앉아도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선사는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거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다시 물었고 선사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문답은 집착을 부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해되는 공안의 하나다.

육긍 거사와 남전 선사 사이에 가장 유명한 공안이 <경덕전등록> 권8에 나타난다. 거사가 선사에게 말했다. “승조(僧肇) 대사는 참으로 기괴(奇怪)합니다. ‘천지는 나와 한 뿌리이며 만물은 나와 한 몸[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一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정원의 목련을 가리키며, “대부. 요즘 사람들은 이 꽃 한 송이의 꽃을 마치 꿈과 같이 보고 있네”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언급한 승조 대사의 “천지는 나와 한 뿌리이며 만물은 나와 한 몸”이라는 구절은 바로 <조론(肇論)>의 <열반무명론(涅槃無名論)>에 나오는 말이다. 그것은 또한 <장자>의 <제물론(齊物論)>에 보이는 “천지는 나와 함께 태어났고 만물도 나와 함께 하나가 된다[天地與我竝生, 而萬物與我爲一]”는 구절에서 연원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중국선은 사상적으로 불성론을 근거로 삼아 ‘반야’의 논리로 구성됐다고 할 수 있다. 불성론에 있어서는 유가(儒家)의 인성(人性)·심성(心性)론과 결합됐고, ‘반야’의 구체적인 사상적 운용에 있어서는 노장(老莊), 특히 <장자>의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육긍 거사와 남전 선사 문답에는 조사선과 관련된 사상사의 역정을 거쳐야 제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서 육긍 거사가 ‘기괴’하다고 한 것은 진짜 기괴한 것이 아니라 더 없는 찬탄인 것이다. 남전 선사가 ‘꿈’과 같이 본다고 한 것은 거사가 아직 꿈속에 있음을 질타하는 말이다. 여전히 승조류의 논리로서만 볼 뿐이지, 그 자취조차도 벗어나 평상심으로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라고 하겠다. 이후 이 문답은 ‘육긍천지동근(陸亙天地同根)’ ‘남전일주화(南泉一株花)’ ‘남전목단(南泉牡丹)’ 등의 명칭으로 선사들이 즐겨 참구하는 화두로 전해졌다.



그림 · 김홍인

거사와 남전 화상 문답 가운데 <경덕전등록> 권10에 실린 공안이 있다.

어느 날 육긍 대부가 남전 선사에게 물었다. “옛사람이 병 속에 거위새끼를 넣고 키웠습니다. 거위가 점차 크게 자라나 병에서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거위를 죽이거나 병을 깨트리지 않고 어떻게 그 거위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선사가 “대부!”라고 불렀다. 거사가 대답하자 선사는 “나왔구나!”라고 말했다. 육긍 대부는 이 말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 공안은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김성동의 <만다라>라는 소설에서 소개돼 잘 알려진 화두이다. 여기에서 설정한 ‘병’과 ‘새’의 두 가지는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없는 모두 소중한 대등가치이다. 이는 크게는 ‘진(眞)’과 ‘속(俗)’, 작게는 우리 삶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대등가치의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한 일상적으로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만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둘 다 취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 앞의 공안에서 말한 ‘천지는 나와 한 뿌리이며 만물은 나와 한 몸’이라면 당연히 풀릴 것이다. 결국 이 화두는 철저하게 ‘진속원융(眞俗圓融)’의 ‘실상무상(實相無相)’한 궁극적 진리를 체득하라는 것이고, 마조-남전의 홍주종 계통의 선에서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른바 “조작(造作), 시비(是非), 취사(取捨), 단상(斷常), 범(凡)·성(聖)이 없는[無]” 평상심을 체득했다는 마음도 없이 완전히 체득하라는 말이다.

<경덕전등록> 권10에는 이 공안에 이어서 남전 선사가 입적할 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남전 선사가 원적(圓寂)했을 때 문상 온 육긍 대부가 울지 않자, 원주(院主)가 물었다. “대부는 어째서 선사가 입적했는데 울지를 않습니까?” 육긍 대부가 “원주가 도를 얻으면 바로 울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원주는 대답이 없었다.

이 공안은 또한 여러 어록과 <거사분등록>의 육긍 거사의 전기에 조금씩 가감돼 실려 있다. <벽암록>과 <거사분등록> 등에서는 다음과 같다.

육긍 거사가 문상을 하러 절에 들어오자마자 도리어 “하하!”하고 크게 웃었기 때문에 원주가 “어째서 울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거사는 “도를 얻으면 바로 울겠습니다”라고 답하자 원주는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거사는 “하늘이 푸르고 푸르구나![蒼天, 蒼天] 선사(先師)가 세상을 떠나신지 아득하구나”라고 말했다.

이러한 차별은 편찬자의 사상적 성향에 따라 나타난 것이고, 그 의미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어쨌거나 생사를 넘나드는 선의 세계에서 문상의 형식은 다양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마조 선사 문하의 방온 거사와 함께 육긍 거사는 선종에 있어서 전형적인 거사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거사들의 행적으로부터 선종 거사의 독특한 지위와 역할이 엿보인다. 이전의 사대부 거사들이 주로 재시(財施)와 외호를 담당했다면, 방온 거사와 육긍 거사는 ‘함께’ 도를 논하고 깨우치는 입장이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38기 氣치유 수련생 모집**

“기치유” 선택 받은 분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치유”는 수련을 통해 누구나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1주 수련 만으로 누구나 기치유사가 될 수 있다.**

▶ 現 서울 불교대학교 대학원 교수 (現 한국 기치유 연구회 회장)로 활동 중인 윤한흥 교수님 직접 지도
▶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함.
▶ 11주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 **수련일자 :** 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4:30(11주과정)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문 의 :** 02-3482-5032, 3482-5065 한국기치유연구회

**기힐링 센터**
교대센터 : 02-3482-5032 / 부산센터 : 051-645-5068
고양센터 : 031-972-7585 / 분당센터 : 031-718-2718
대구센터 : 053-652-2202 / 노원센터 : 02-930-3327

문의 www.gihealing.com 02-3482-5032,5065 한국 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易理作名法**

**[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

이름은 한번 잘 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대개의 작명서(作名書)들이 한결같이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에만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 같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이라면 두 사람은 똑 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필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을 제거하고 본인의 사주(四柱)와 띠(年支)에 맞추어 짓게 한 것이다. 좋은 이름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은 물론이고,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맞추어 지어야 비로소 좋은 이름을 얻게 된다. 주역(周易)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설을 하였다. 이 책을 만나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길명(吉名)인지, 흉명(凶名)인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 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大邱에서 많은 후학(後學)들에게 작명법(作名法)을 강의하고 있으며, 본서(本書)가 참다운 작명(作名)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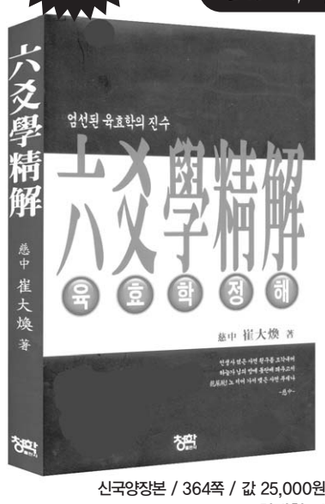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역리작명법(易理作名法) 382쪽 (정가 : 30,000원)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陰陽學會 會長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주문전화 : 053)324-2468 / 326-4585

**六爻學精解**
**육 효 학 정 해**

신출귀몰 화제의 책!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엄선된 육효학의 진수!**

초보에서 완성까지!




신국양장본 / 364쪽 / 값 25,000원
동방대학원대학교 육효학 전문가 과정 교수 최대환 저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목차부터 배우기 쉽도록 배열이 잘 되어 있으며 육효학에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본 학문을 연구하거나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3시까지 〈육효학정해〉 저자 직강!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02-929-46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 문해성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청학출판사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과 운명을 바 꿔 주 는 “기도의 비밀”

**한 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 찾아오시는길 :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훼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기도의 비밀이 자신의 인생과 가족평생의 길흉화복을 좌우합니다. 관음정사에 오시면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